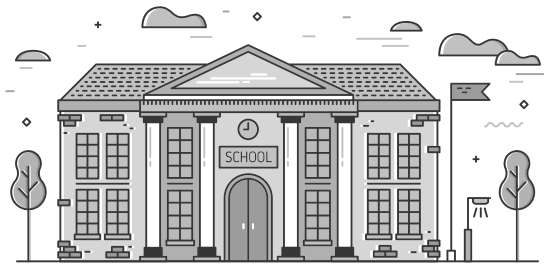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교육불평등 리포트_영재학교 편

국회의원 **강득구**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교육불평등 리포트_영재학교 편

서울·경기에서만 영재나나, 영재학교 입학생 2년 연속 10명 중 7명이 서울·경기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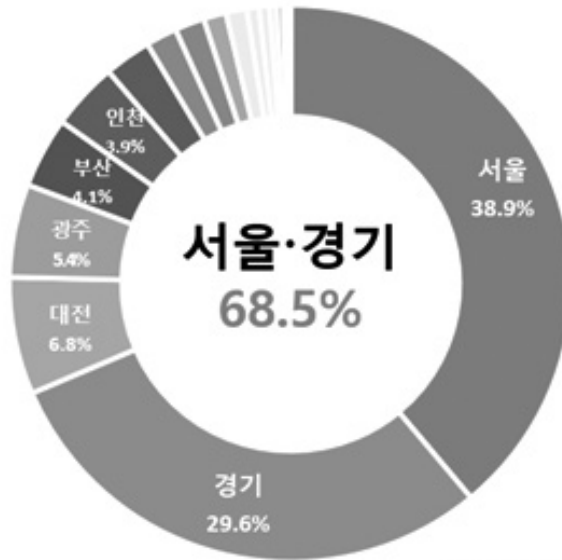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영재학교 입학자 수도권 쏠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828명)의 68.5%(567명)가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임.**

현재 전국의 영재학교는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총 8개교가 있으며 각 학교별로 70~130명을 선발하고 있다.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28명으로 이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전체(828명)의 68.5%(567명)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2020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중학교 출신 지역 비율

(전체 8개 영재학교 총 828명의 출신 지역별 비율: 서울 38.9%, 경기 29.6%, 대전 6.9%, 광주 5.4%, 부산 4.1%, 인천 3.9%, 대구 2.7%, 경남 1.8%, 충남 1.7%, 전남 1.3%, 세종 1.2%, 전북 0.7%, 울산 0.6%, 강원 0.4%, 충북 0.4%, 경북 0.2%, 제주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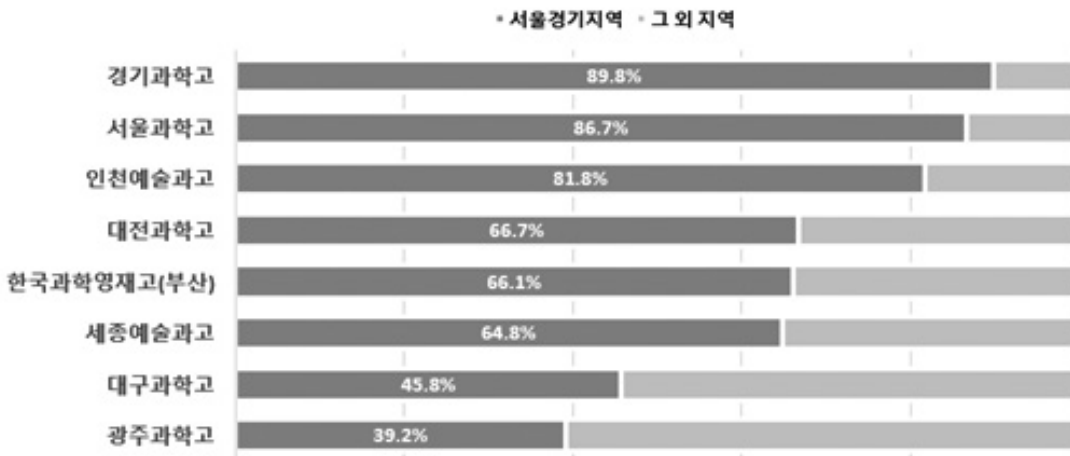


※자료 : 강득구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0

문제점① 유명무실해진 지역 영재 육성,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 서울경기 출신이 해당 지역의 6.3배에 달함.

서울과고와 경기과고를 제외한 지역 영재학교의 서울·경기 지역 출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81.8%, 대전과학고 66.7%,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 66.1%,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64.8%, 대구과학고 45.8%, 광주과학고 39.2%로 광주과학고를 제외한 5개교는 해당 지역 출신 학생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많다. 이는 지역의 영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영재학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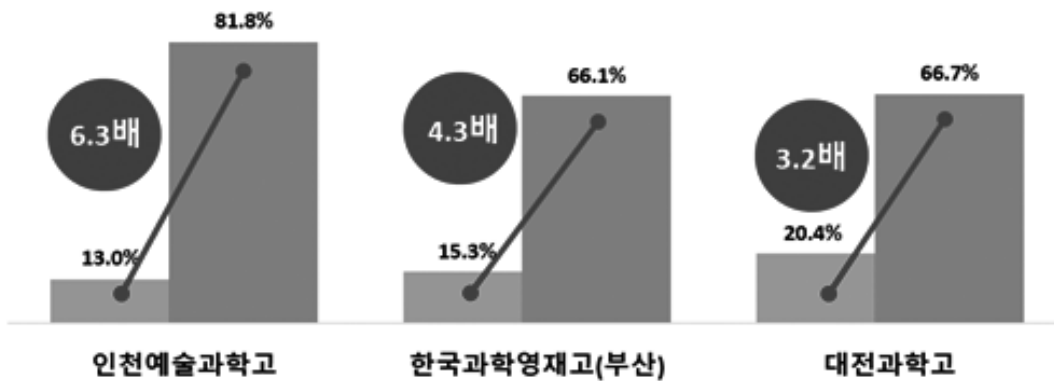
2020 전국 영재학교별 서울·경기 지역 출신 비율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 인천 지역 학생(10명, 13%)보다 서울·경기 출신 학생(서울: 32명(41.6%), 경기: 31명(40.3%))이 6.3배가 많다.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부산 출신 학생(18명, 15.3%)보다 서울·경기 출신 학생(서울: 48명(40.7%), 경기: 30명(25.4%))이 4.3배가 많았으며, 대전과학고도 대전 출신 학생(19명, 20.4%)보다 서울·경기 출신 학생(서울: 44명(47.3%), 경기: 18명(19.6%))이 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재학교 지역 출신 VS 서울·경기 지역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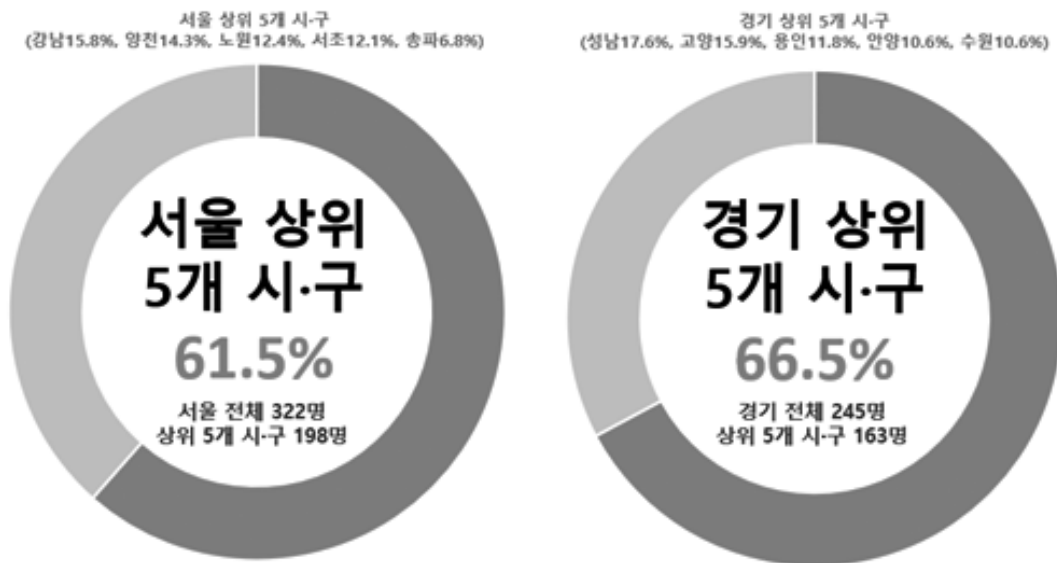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0

**문제점②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2020학년도 전체 입학생의 절반 이상인 452명(54.6%)이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3개 학원 프랜차이즈 출신.**

입학자 출신중이 위치한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의 입학생은 전체 입학생(828명)의 43.6%(361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상위 10개 시구는 ‘강남구·양천구·노원구·서초구·송파구’ 등 서울 5개구와 ‘성남시·고양시·용인시·안양시·수원시’ 등 경기 5개시이다. 이들 10개 시구는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이 위치한 지역이다. 서울 상위 5개 구의 경우 서울 전체 입학생(322명)의 61.5%(198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기 상위 5개시는 경기 전체 입학생(245명)의 66.5%(163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의 대다수가 사교육 과열지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재학교 입학전형이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0 영재학교 서울·경기지역 상위 5개 시·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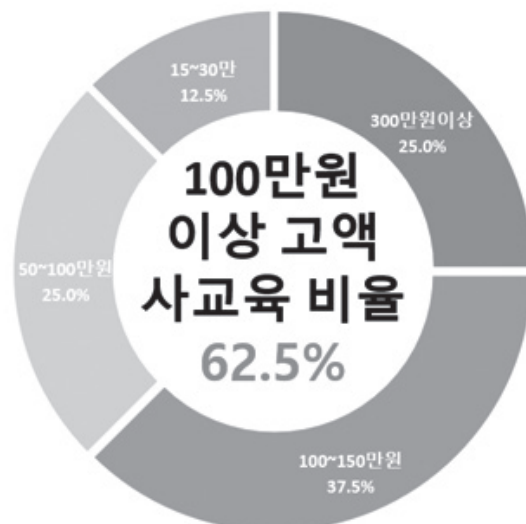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홍보하는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 현황도 사교육 친화적인 영재학교 입시 문제를 증명하고 있다. A학원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 304명을 배출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B학원은 79명, C학원은 6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이 홍보물이 사실이라면 3개 학원 프랜차이즈에서만 2020학년도 전체 정원의 54.6%인 452명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영재학교 입학의 키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점③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영재학교 희망 중3의 25%가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100만원 이상 지출은 62.5%**

20대 교육위원회 신경민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 조사한 ‘2019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에 의하면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의 62.5%가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했다고 응답했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5%나 됐다. 또한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재교육원, KMO, 선행학습, 올림피아드 등등 끝도 없는 시험 준비에 학창시절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한다.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은 이 바닥의 상식으로 통하는 문화 덕분에 ‘사고력수학학원’을 시작으로 영재학교 입시의 과정을 치열하게 준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중학교 수년간을 월 3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써가며 영재학교 입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에 집중된 영재학교 입학생 실적만 보아도 이 험난한 입시 트랙에서는 사교육 인프라와 입시정보가 영재학교 입시의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력, 거주지역 등 부모의 배경이 영재교육의 기회마저 불평등하게 만드는 교육불평등의 참상이다.

중 영재학교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



※자료 : 신경민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

교육불평등 야기하는 현행 영재학교 체제, 개선 대책이 시급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2020학년도 해당 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영재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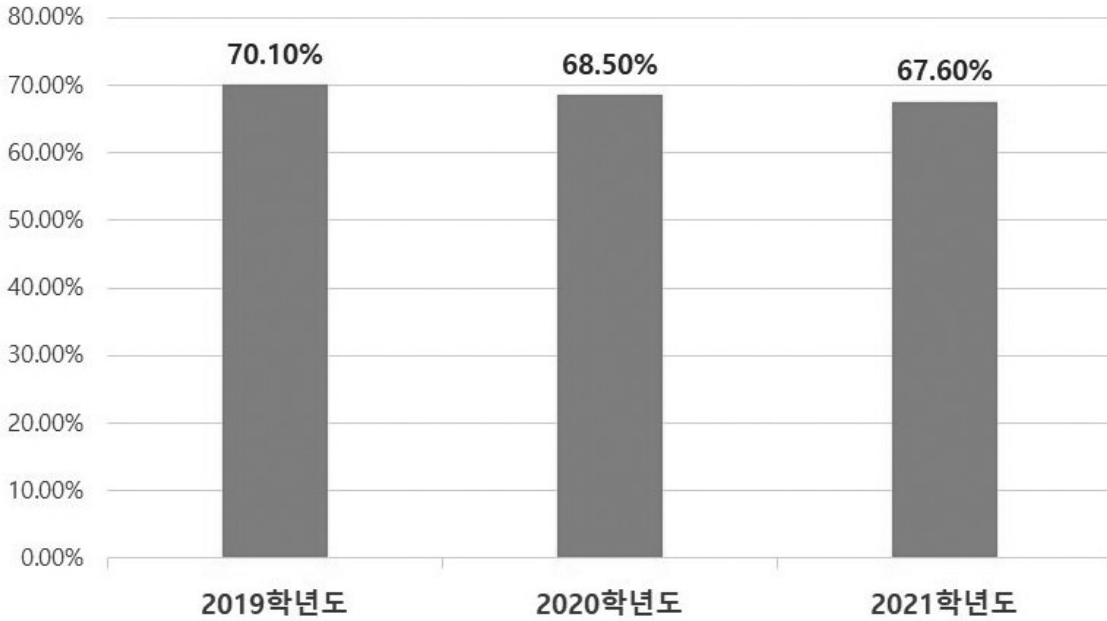
이런 상황을 교육부도 깨닫고 지난 11월 △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지필고사를 유지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문제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영재학교 입학전형 등의 학교체제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1학년도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함. 3년 연속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등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전국 8개 영재학교(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021학년도 입학생은 총 828명이다. 그 중 서울과 경기 소재 중학교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단위지원 ·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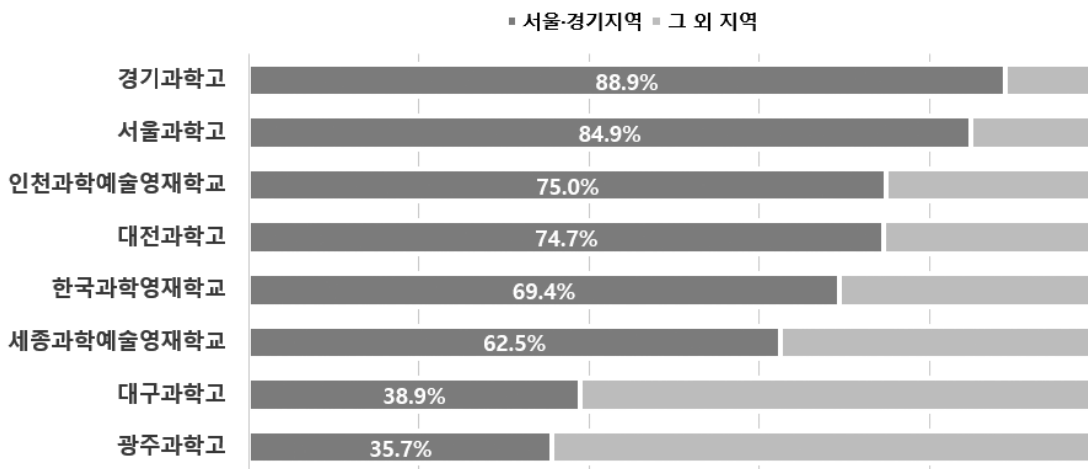
중지원'이 가능한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으로 인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매년 지속되어 왔다. 2019학년도 70.1%, 2020학년도 68.5%에 이어 여전히 영재학교 입학생 10명 중 7명은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영재학교 입학생의 서울·경기 지역 출신 비율 평균



※ 자료: 신경민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9)
강득구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0,2021)

전국 8개 영재학교별 서울·경기 지역 출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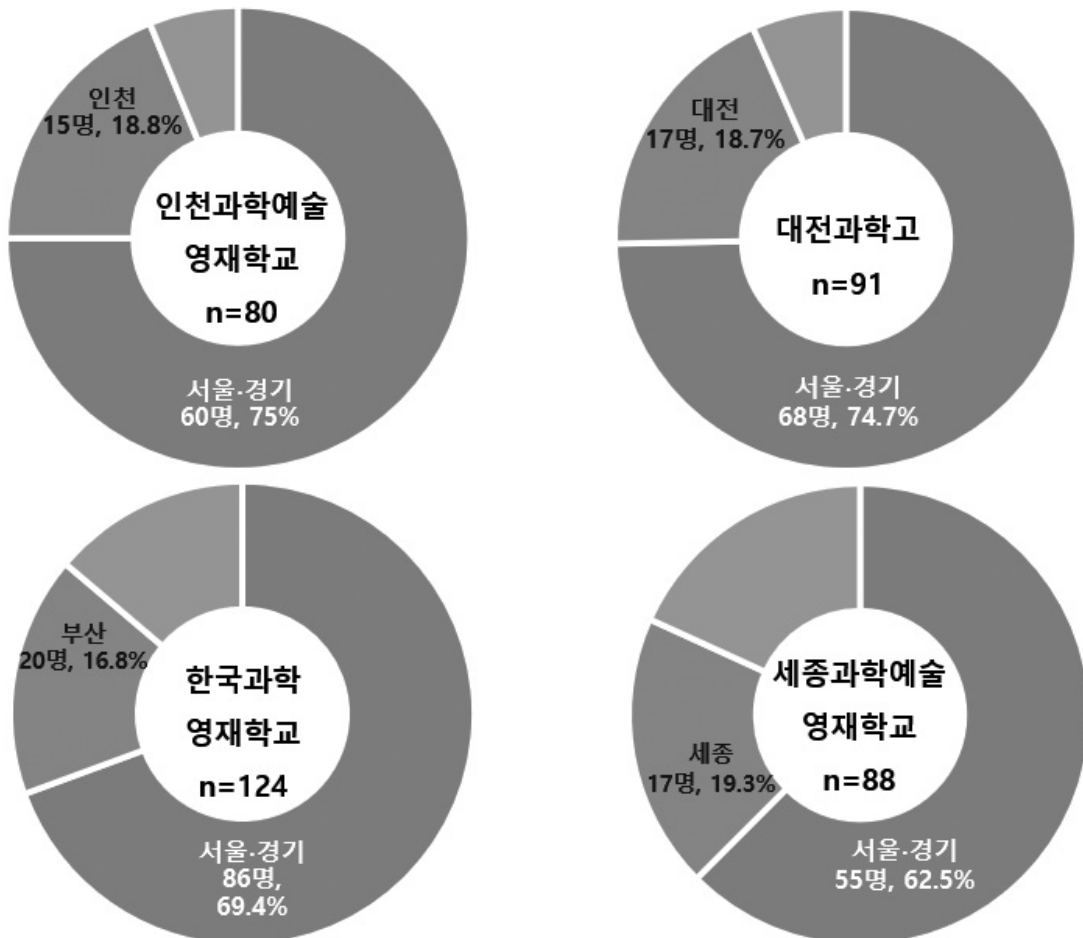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실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 2021

특히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 출신 16.1%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69.4%로 4.3배 가량 많고 대전과학고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도 각각 대전과 인천 출신 입학생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4배나 많은 등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함.

학교별로 살펴보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학교 소재지인 부산 출신(20명, 16.8%)보다 서울·경기지역 출신(86명, 69.4%) 입학생이 4.3배 가량 많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의 경우에도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4배 많은 것을 확인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또한 세종 출신 입학생이 서울·경기 출신보다 3배 이상 많다. 이처럼 영재학교 입학에서의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서울 경기지역 출신 vs 영재학교 소재지역 출신 비율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실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 2021

**영재학교 입학생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입학생 560명 중에서 63.9%에 해당하는
358명은 수도권 사교육 밀집 지역인 10개 지역단위 출신임.**

영재학교 입학생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입학생 수는 358명으로 전체 828명 중 43.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 지역으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25.5%), 양천구(12.8%), 서초구(9.0%), 송파구(8.4%), 노원구(5.3%)’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1%를 차지합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고양시(19%), 성남시(18%), 용인시(12%), 수원시(10%), 안양시(8%)’로 경기 출신의 66.9%가 이 5개시 지역 출신이다.

영재학교 입학과 사교육 연관성은 영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프랜차이즈 학원의 홍보물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재학교 대비반을 운영하는 A학원에서는 2021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가 324명임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B학원과 C학원에서도 각각 108명, 78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 세 학원의 합격자 수를 더하면 510명으로 전체 영재학교 합격자 828명 중에 무려 61.5%에 해당된다. 교육부도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평가 문항,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선다형·단답형 문제가 지나치게 많이 출제되는 점 등이 영재학교 희망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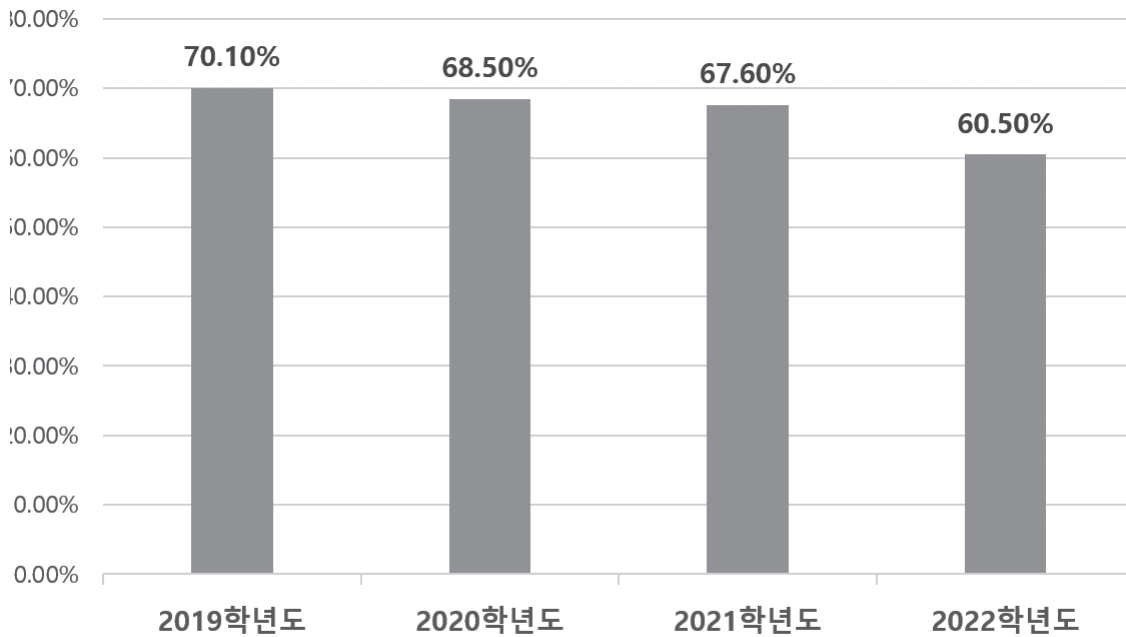
교육부 개선방안 무용지물 영재학교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 여전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생 출신중학교 분석했다. 영재학교가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부터 적용된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6월에 원서접수를 시작해 8월에 합격자 발표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2022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개선방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는지를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2022학년도 합격예정자 83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은 507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함.
전년대비 서울·경기 출신 비율은 7.1%p 감소했으나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큼.**

분석 결과 전국 8개 영재학교(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022학년도 합격예정자 838명(합격예정자 수는 국내 중학교 출신만 통계에 반영함) 중 60.5%에 해당하는 507명이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 비율이 7.1%p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큰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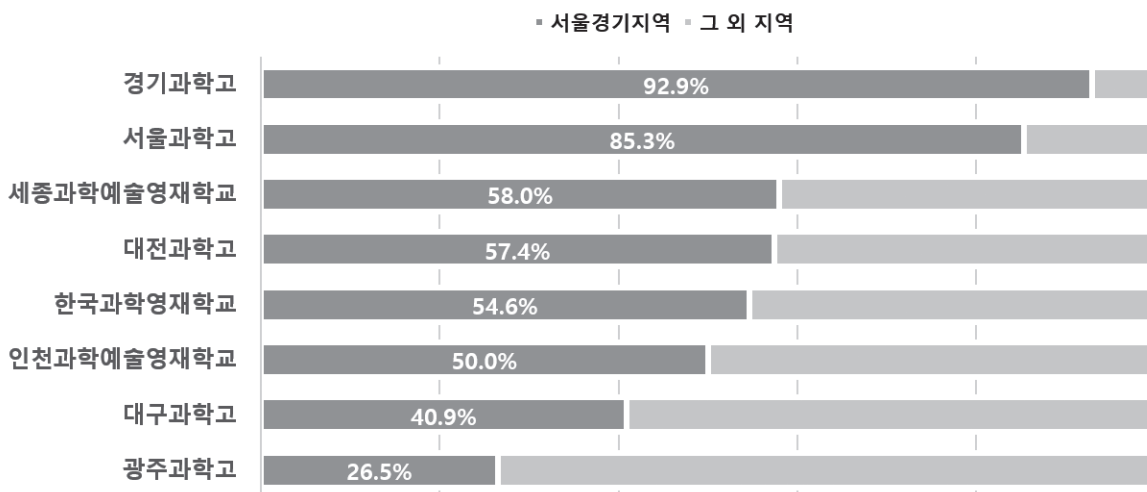
연도별 영재학교 입학생의 서울·경기 지역 출신 비율 평균



※ 자료: 강득구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0,2021,2022)
신경민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9)

경기과학고와 서울과학고는 각각 합격예정자의 92.9%, 85.3%가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이었으며, 지역에 소재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58.0%), 대전과학고(57.4%), 한국과학영재학교(54.6%),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50.0%)도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지역 출신이었다.

전국 8개 영재학교별 서울·경기 지역 출신 비율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실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 202

이같은 결과는 교육부가 작년 11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방안을 내놓은 것에서 기인한다. 당시 교육부는 ‘입학생의 특정지역 편중 및 계층 불균형 심화’가 문제라고 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별도의 지역인재 전형을 두지 않고 1·2단계 통과자 중 선발인원과 우선선발 지역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영재학교 입학생 특정지역 편중현상 개선 방안

□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 2단계 전형 통과자 중 학교 소재지, 영재학교 미소재 지역 등 학교가 정한 지역의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 확대
- 학교별 지역인재전형 운영 규모, 전형방법(예시: 3단계 전형은 면제 하되 인성면접은 실시) 등은 학교,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결정

< 영재학교 지역인재전형 운영 사례 >

- (서울과학고) 2021학년도 입학전형 2단계 전형 통과자(200명) 중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및 서울 외 16개 시·도에서 가장 탁월한 자 각 2명 이내 우선 선발(41개 지역, 최대 82명)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 2단계 전형 통과자 중 인천 지역 10개 자치구 및 인천 외 16개 시·도에서 가장 탁월한 자 각 1명 이내 우선 선발(26개 지역, 최대 26명)

※자료출처: 교육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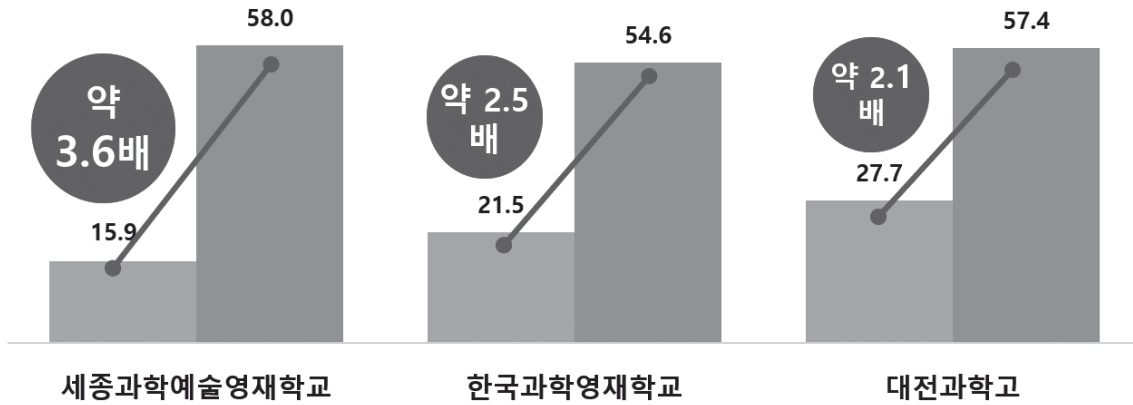
이렇게 될 때 학교가 우선 선발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하거나 선발 비율을 낮게 정해 소재 지역 학생보다 수도권 지역 학생 선발이 여전히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어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소재 지역 대비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5.9%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58.0%로 3.6배 가량 많고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도 각각 소재지부산과 대전 출신 합격자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5배, 2.1배 가량 많은 등 지역 편중 현상이 여전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5.9%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58.0%로 3.6배 가량 많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도 각각 소재 지역인 부산과 대전 출신 합격자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5배, 2.1배 가량 많습니다.

각 영재학교 소재 지역출 vs 서울·경기 지역 비율 비교(단위 %)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실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 202

광주과학고만 유일하게 합격자 중 소재 지역 중학교 출신이 46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 26명보다 많다. 그 이유는 광주과학고만 지역인재전형을 별도로 두고 정원의 50%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영재학교 합격자의 지역 편중 현상을 막으려면 광주과학고의 경우처럼 지역인재전형을 별도로 두고 소재지역 학생을 50%이상 선발하는 제도를 교육부는 개선방안으로 발표했어야 한다.

2022학년도 광주과학고 입학 전형 요강 중 전형 유형 및 선발 인원

● 전형 유형 및 선발 인원

- 정원 내

구분		모집인원	모집정원
정원 내	글로벌 융합인재전형	45명 (지역인재 우선 선발 19인 이내)	90명
	지역인재전형	45명	

※자료출처: 광주과학고 홈페이지

하지만 이 방법도 서울·경기 지역의 학생이 전국의 영재학교에 지원해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 지구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서울과학고와 경기과학고에 이미 서울·경기 출신이 90% 정도 입학했는데도 나머지 6개교에 입학정원의 50% 정도를 서울·

경기 출신 학생에게 허용하는 제도는 영재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출신 507명 중에서 64.9%에 해당하는 329명이
수도권 사교육 밀집 지역인 10곳 출신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수는 329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507명의 64.9%, 영재학교 전체 합격예정자 838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67명, 22.6%), 양천구(48명, 16.2%), 송파구(29명, 9.8%), 서초구(28명, 9.4%), 노원구(27명, 9.1%)'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총 199명)의 67.0%를 차지한다. 경기 지역의 경우 '성남시(29명, 22.3%), 고양시(27명, 20.8%), 용인시(27명, 20.8%), 수원시(24명, 18.5%), 안양시(23명 17.7%)'로 경기 출신 입학생(총 130명)의 61.9%가 이 5개 지역 출신이다.

공든 탑 무너진 이공계 인재육성 3년간 270명이 영재학교에서 의약계열 지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최근 3년간 의약계열(의/치/약/한의) 지원 및 진학 현황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했다. 그동안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약계열 진학은 과학 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막대한 세금으로 영재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민 혈세로 가르쳐야 하나’라며 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설립취지에 벗어난 의약계열 진학을 막기 위해 모집요강에 ‘의약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하며 진학시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매년 가장 많은 의약계열 진학자가 나오는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도 2020학년도부터 △의약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 권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교내대회 시상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22학년도 모집요강에는 의약계열 진학시 제재 방안을 더욱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가 의대진학 실태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두 기관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 희망 시 제재 방안]

- 1) (진로·진학 지도 미실시)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진로·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함
- 2) (학교생활기록부Ⅱ 제공)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근거를 둔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함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석차등급이 제공됨
 - 연구·리더십 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반영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Ⅱ의 일부 항목(창의적체험활동 등)이 공란으로 처리됨

※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36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미제공
- 3) (학교 시설 이용 제한)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의 시설(기숙사, 도서관 등) 이용을 제한함
- 4)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추가 교육비와 학교를 통해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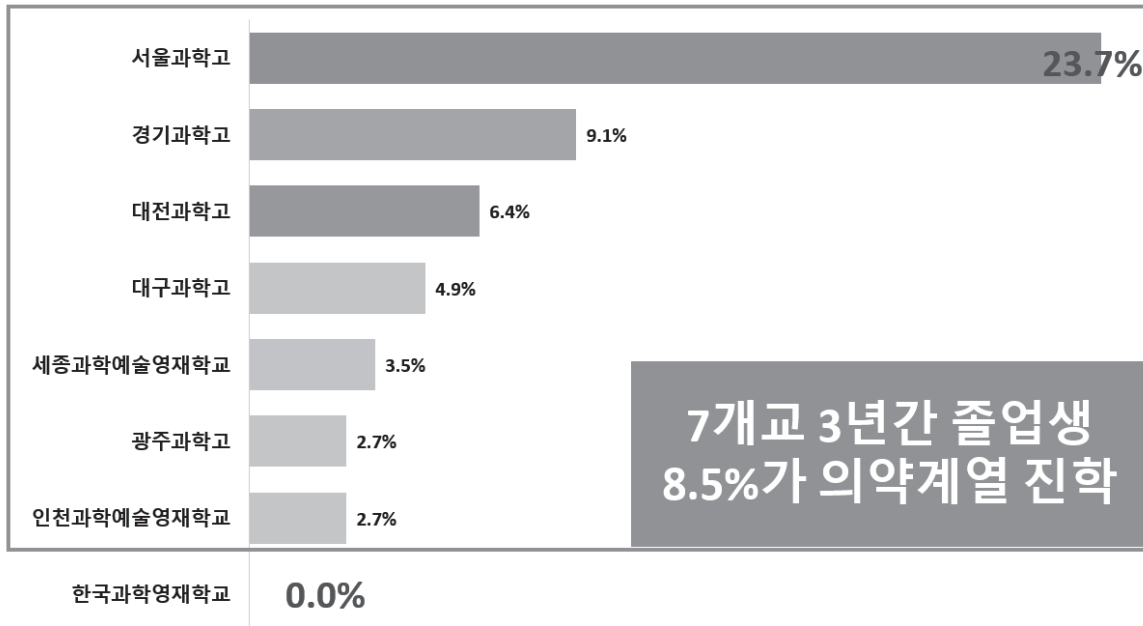
※ 의·약학계열: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포함

※자료 출처: 서울과학고 홈페이지

최근 3년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고)에서 졸업생(2,097명)의 8.5%인 178명이 불이익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열로 진학함.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고)에서 졸업생(2,097명)의 8.5%인 178명이 불이익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열로 진학했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난 3년간 의약계열 진학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국 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률



의학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4명 중 1명(3년간 졸업생 371명 중 88명, 23.7%)
 꼴로 진학한 서울과학고였으며, 그 다음은 경기과학고로 10명 중 1명
 (3년간 졸업생 373명 중 34명, 9.1%)이 의학계열에 진학함.

의학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은 영재학교는 4명 중 1명이 의학계열에 진학한 서울과학고였다. 지난 3년간 졸업생 371명 중 88명으로 23.7%가 의학계열에 진학했다. 2019학년도에는 졸업자 123명 중 28명(22.8%), 2020·2021학년도에는 각각 졸업자 124명 중 30명(24.2%)이 의학계열에 진학했다. 학교측이 의학계열 진학시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의학계열 진학자가 많이 나온 곳은 10명 중 1명이 의학계열로 진학한 경기과학고였다. 지난 3년간 373명 중 34명으로 9.1%가 의학계열로 진학했다. 2019학년도에는 졸업자 120명 중 10명(8.3%), 2020학년도에는 127명 중 11명(8.7%)이, 2021학년도에는 126명 중 13명(10.3%)가 의학계열에 진학했다.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학계열 진학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영재학교 측의 불이익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에도 경기과학고의 경우는 진학자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였다.

그 뒤를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가 있고 있었다. 대전과학고는 3년간 졸업생 281명 중 18명(6.4%), 대구과학고가 282명 중 14명(4.9%),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282명 중 10명(3.5%), 광주과학고가 291명 중 8명(2.7%),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217명 중 6명(2.7%)가 의약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학년도 영재학교별 의약계열 지원 및 진학 현황

학교명	학년도	졸업자(명)	의약계열 지원자(명)	지원율(%)	진학자(명)	진학률(%)
서울과학고	2019	123	39	31.7	28	22.8
	2020	124	39	31.5	30	24.2
	2021	124	39	31.5	30	24.2
	계	371	117	31.5	88	23.7
경기과학고	2019	120	15	12.5	10	8.3
	2020	127	21	16.5	11	8.7
	2021	126	29	23.0	13	10.3
	계	373	65	17.4	34	9.1
대전과학고	2019	95	6	6.3	6	6.3
	2020	93	6	6.5	6	6.5
	2021	93	6	6.5	6	6.5
	계	281	18	6.4	18	6.4
대구과학고	2019	96	4	4.2	2	2.1
	2020	93	10	10.8	5	5.4
	2021	93	18	19.4	7	7.5
	계	282	32	11.3	14	4.9
세종과학예술 영재학교	2019	91	5	5.5	2	2.2
	2020	94	4	4.3	4	4.3
	2021	97	4	4.1	4	4.1
	계	282	13	4.6	10	3.5
광주과학고	2019	97	5	5.2	4	4.1
	2020	97	4	4.1	2	2.1
	2021	97	4	4.1	2	2.1
	계	291	13	4.5	8	2.7

인천과학예술 영재학교	2019	75	9	12.0	5	6.7
	2020	71	3	4.2	1	1.4
	2021	71	0	0	0	0
	계	217	12	5.5	6	2.7
한국과학 영재학교	2019	128	0	0	0	0
	2020	127	0	0	0	0
	2021	131	0	0	0	0
	계	386	0	0	0	0

**7개교의 의약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졸업생의 12.9%에 해당함.
이는 실제 진학자 178명보다 92명이 많은 수치임.**

의약계열 진학자가 나온 7개 영재학교의 의약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진학자보다 92명 많은 수치이며, 비율로 따지면 12.9%로 진학률인 8.5%보다 4.4%가 높은 수치이다. 각 영재학교 측이 내세운 의약계열 진학시 불이익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증명하는 통계이다.

의약계열 지원자가 가장 많이 나온 영재학교도 역시 3년간 371명 중 117명(31.5%)이 나온 서울과학고였다. 경기과학고가 373명 중 65명(17.4%)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구과학고(282명 중 32명, 11.3%), 대전과학고(281명 중 18명, 6.4%),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217명 중 12명, 5.5%),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282명 중 13명 4.6%), 광주과학고(291명 중 13명, 4.5%) 순으로 지원률이 높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의약계열 지원자 역시 3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단 한명의 의약계열 지원자와 진학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공계 인재 육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맞는 학생 선발을 위해 2013학년도부터 ‘의약계열 지원시 졸업유예’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의약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 권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교내대회 시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타 영재학교에서 의약계열 진학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했다. 그렇다면 타 영재학교도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의약계열 지원시 졸업유예를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대진학을 막고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진짜 영재교육 실시를 위해 영재 선발은 ‘영재발굴센터’가, 영재학교는 위탁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국가의 영재 양성이 특정 지역, 특권 계층에 의해 독식되어 심한 불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사회적인 화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 교육제도 내의 불공정과 특권이 대물림되는 문제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도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지역적 배경에 따라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가 영재학교에 선발되는 문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실시(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1항)’한다는 영재교육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이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영재학교에 대한 문제점은 다방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입학전형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 운영, 졸업 후 의대 진학 등의 문제 등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미의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영재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단기적인 개선방안은 물론이고 체제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입학전형 개선 방안 ①]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에 지원하는 것(단, 거주 지역에 영재학교가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영재학교 한 곳에 지원)으로 전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영재학교 지원은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영재들의 자유로운 권한에 해당하므로 제안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시행령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무분별한 지원과 비교육적인 눈치작전을 막아야 합니다.

전국 영재학교의 이름은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그 설립목적이나 교육과정 운영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특정 영재가 특정 영재학교에 진학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영재학교에 지원하려는 중학생은 해당 소재지에 있는 영재학교에 지원하면 된다. 17개 시도 중 영재학교가 없는 9개 시도 출신 중학생에게는 8개 영재학교 중 어느 하나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특정 지역 학생 쏠림 현상이나 눈치작전을 막고, 선발에 드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영재학교 지원은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는 규정이다. 영재들의 자유로운 권한에 해당하므로 제안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시행령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무분별한 지원과 비교육적인 눈치작전을 막아야 한다.

[입학전형 개선방안 ②]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과학고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여 입시정보 취득이나 지필고사 대비 사교육비 감당 등 부모 찬스가 통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과학고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여 입시정보 취득이나 지필고사 대비 사교육비 감당 등 부모 찬스가 통하지 않도록 영재교육법 시행령 제 12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학교의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지필고사이다. 영재를 지필고사로 변별하려고 하면 중학교 수준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는 문제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 또는 창의성 검사라는 명목으로 수학·과학의 경시대회 기출문제와 유사한 고난도 문제로 학생들을 변별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입시 경향이나 고도의 입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설사 그런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월 300만 원 이상 고액의 사교육비를 초등 저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가정의 자녀가 입학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10여년간 30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능력이 있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의 특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교육 과열지구라는 거주 지역에 의한 입학 기회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위 사교육 과열지구로 불리는 10개 시구에서 영재학교 입학자의 절반 가량이 나오는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말 교육부도 ‘지필평가폐지’ 등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 하나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8개의 영재학교와 설립 목적이나 교육과정이 별 다를 바가 없는 전국 20개의 과학고등학교는 지필고사가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10여 년 전인 2011학년도부터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영재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재학교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에 다시 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두 학교의 입학전형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과학고등학교에서 잘 정착하여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당장에라도 영재학교 입시에 도입할 수 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같은 방식의 입학전형을 하는 것은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게도 훨씬 수월할 것이며,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등의 방식을 허용고 있는 한 지필고사로 인한 폐해는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중장기 발전방안 ①]

각 시도교육청에 영재발굴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일시적 영재 선발에서 영재 연중 상시 발굴로 방향 전환

영재학교가 무리하게 지필고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영재를 선발하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영재 선발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나 민원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여 0.1점 차이로 탈락시키는 비교육적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영재를 발굴하는 ‘영재발굴센터(가칭)’을 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영재발굴센터에는 많은 영재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연중 수시로 영재성과 잠재력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해야 한다. 이렇게 발굴된 영재를 영재학교에 입학시키면 됩니다. 영재발굴단에서는 소외 계층 영재도 발굴하여 가정 형편에 가려 발현되지 못한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장기 발전방안 ②]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운영하도록해 초·중학생 선행학습과 영재학교 재학생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함.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 8개 영재학교는 경쟁적으로 대학의 전공 학과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초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교육과정 운영은 영재학교 입학에 원하는 초·중학생에게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영재학교 입학 트랙으로 진입해야만 무사히 선행학습을 마치고 영재학교 입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유발하는 사교육은 비단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재학교 재학생의 사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재학교 내신이 곧 대입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영재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학습과 대비학습, 그리고 추후 학습을 위해

서 주말 사교육 시장이 성행하고 있다. 즉, 영재학교는 입학 을 위한 사교육 못지않게 재학 중의 사교육이 성행한다. 서울의 대치동 학원가에는 주말마다 캐리어를 들고 학원으로 오는 영재학교 재학생들이 많다. 이들은 과목별로 특수화된 학원으로 가게 되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에 영재학교 주변은 이들 학원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영재학교 재학생의 사교육은 대입 내신, 즉 영재학교 내의 내신 경쟁이 주된 이유이다. 이것은 영재학교 수학, 과학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상당 부분 생략하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엄청나게 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수학 교과 의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과 영재학교 교과목, 그리고 대학의 교양과목과 수학 전공과목을 비교한 것이다. 영재학교 수학 교과목은 거의 다 대학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정규 수학 교과목과 영재학교, 대학의 수학 전공과목 비교표

과정	일반 고등학교	영재학교
고교 정규 교과목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학 I 수학 II
대학 1학년 교양과목		(고급) 미적분학 I (고급) 미적분학 II
대학 수학과 2~4학년 전공과목		미적분학 III 정수론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확률과 통계

특히 대학 선이수 과정인 AP(Advanced Placement) 교과목의 경우, 대개는 영재학교 2학년부터 수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PT(Placement Test)를 통해 1학년 때부터 AP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다. 영재학교에서의 AP는 오히려 대학에서의 수업보다 내용이 더 어렵고, 시험 문제도 난도가 더 높다는 증언이 많다(한기순, 최호성(2014). 과학영재학교에서의 AP(Advanced Placement)의 경험과 의미: 대학생이 된 영재학교 졸업생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4(6). 1001-1024.).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꼽은 영재학교에서 AP 경험은 공통적으로 ‘대학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기초필수나 기초선택과목에 비해 그 수업이나 시험에서의 난이도가 매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물론 영재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수업에 무난히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너무 어려운 내용에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한 채 AP 인정에 준하는 학점만 부여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AP 과목의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관한 개인차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다수의 영재학교 재학생이 교육과정을 소화하기에 버거워 한다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증언이다(한기순, 최호성, 2014).

“너무 이론 위주로 배우고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는 영재고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AP 과목을 듣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초적인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학생에게 어려운 AP를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언제나 잘 하는 학생은 소수였다.”

영재학교에서 AP를 비롯한 심화선택과목을 함부로 가르치는 것은 영재 중에서도 극히 일부는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영재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공교육을 통해 수학과 과학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고교 교육과정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대학과정을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영재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생략해왔던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소화한 후 AP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 발전방안 ③]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전면 금지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진학 유도**

영재학교는 영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그래서 일반고보다 작게는 서너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8개 영재학교

모두 입학전형요강에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의치약학계열 진로 희망자는 부적합”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021학년도 입학전형요강 유의사항

7. 유의 사항

- 가. 본교는 이공계열의 수학·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영재학교이므로 의·약학 계열의 진로 희망자는 본교 진학에 부적합함
- 나.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대상자 발표 후 학교생활기록부(Ⅱ)에 대한 평가 및 「입학전교육」 적용 등을 통해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학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라. 모든 전형 일정과 방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러나 영재학교 입학이 곧 상위권 대학 진학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으로 변질되어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반하고 있다. 영재학교 졸업생 중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POSTECH, GIST, UNIST, DGIST)에 진학하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일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여 영재교육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결정적인 것은 의학계열 대학 진학인데,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

이처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해마다 증가하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학계열 진출은 “의대로 먹튀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영재학교 측이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입학생부터 의대 진학시 교육비 1,500만원을 환수(서울과학고)하겠다고 했지만 “뺏고 의대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즉 교육비를 토하더라도 의대진학 후 얻게 될 고소득이 더 매력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비를 환수하는 정도로는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의학계열 진학 시 고등학교 졸업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학계열 진학자가 한 명도 없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입학전형 요강이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의학계열 진학을 거부하는 설명을 했고, 합격생과 학부모에게는 의학계열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그리고 해마다 수차례 이루어지는 재학생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에 의대 진학생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즉시 교육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회수하고 졸업자격을 박탈하여 의대 진학이 취소되었고, 그 학생

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에 서울과학고에서 내놓은 교육비 환수나 시상실적 취소만으로는 절대로 의학계열 진학을 막을 수 없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국가적인 영재 양성에 차질이 없고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이익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중장기 발전방안④]

장기적으로는 영재학교는 분리교육 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함.

정원을 두고 시험을 치른 후 출세우기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영재학교에 입학해 영재교육을 받는 현행 체제는 영재교육을 왜곡하고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의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에서 전문가에 의해 발굴된 영재가 수학·과학·예술 분야의 과목을 영재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영재교육은 지속하되 이들이 일반고에서 다양한 동료들과 어울리는 교육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영재학교 체제를 전환한다면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물론이고 꼭 필요한 영재 양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취이다.

21세기는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한두 명의 개인적인 영재가 큰 업적을 내던 시대는 지났다. 여러 전문가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새롭고 혁신적인 업적, 창의성이 발휘될 것이다.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_4〉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교육불평등 리포트_영재학교 편

발행일	2021년 10월 21일
펴낸이	국회의원 강득구
함께한 분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연구원 김초아
전화	02-784-2747~9
팩스	02-6788-6015
이메일	mainsail440@daum.net
제작	피그말리온

강득구와 함께하는 사람들

서용선, 안홍식, 홍미하, 최경순, 문형구, 최기섭, 조나연, 오세령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_4

국회의원 **강득구**